

서신동 수달보금자리서 수달 확인

전주시, 관찰카메라 설치·모니터링 실시... 결과 토대로 서식환경 개선·보호 정책 마련 계획

전주시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수달 보금자리에 실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환경단체 등과 함께 서신동 전주천·삼천 합류점 부근에 조성한 수달 보금자리를 관찰한 결과 인근에서 수달의 활동 모습이 관찰되고 수달 보금자리 내 곳곳에서 수달과 고라니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의 활동 흔적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수달 보금자리는 전주시가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삼천 생태

하천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된 섬 형태와 생태수로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했다.

수달 보금자리에서 수달의 활동과 배설물 등 서식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단체의 지문을 거쳐 수달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수달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 설치된 콘크리트 고정보 5개소를 여울형보를 개선하도록 건의한 상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현재 수달의 상하류 이동경로 확보를



전주천·삼천 합류점 수달 보금자리

위해 여울형보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전주천·삼천 수달이 자유롭게

수달 보금자리와 전주천·삼천 상류 지역을 오가는 등 서식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향후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 생태학습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찰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수달 생태에 맞춘 보호정책과 서식지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라고 설명했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은 "수달이 수달 보금자리 조성구간 내 서식이 확인돼 생태하천 복원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의 하천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입양아에게 봉침 놓은 목사 검찰 송치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차도에서 위협에 노출시킨 40대 여성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44,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료 면허 없이 입양아 B(7)군 등 2명에게 봉침을 놓고, 2014년 6월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서 입양아 한 명을 끌어안고 드러누운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아이

를 보호해야할 보호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나는 종교인이다. 살아오면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다"면서 "실체 없는 수사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침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경력증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이삼민 기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주시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 KOTRA지원단은 22일 전주로니호텔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전주시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수출상담회는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로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해 중국과 미국, 홍콩, 벨기에 등 9개 국가의 유망 바이어 22개사를 초청했다.

시는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전주지역 우수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등 50여개 업체들과 해외바이어들과의 1대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기업들의 주요 상담품목은 유자차와 분말차 등의 식품군, 기초화장품과 마스크 팩 등 미용제품, 건강제품, 생활잡화 등이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길이 열리고 작지만 강한 특일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이번 상반기 수출상담회는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들이 다수 참가해 수출계약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KOTRA지원단은 22일 전주로니호텔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시는 중국과 미국, 홍콩, 벨기에 등 9개 국가의 유망 바이어 22개사를 초청했다.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교통체계 바뀐다

시, 올 연말까지 19억 원 투입... 5지→4지로 개선·좌회전 가능

전주시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금암광장 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19억 원을 투입해 기존 5지 교차로였던 금암광장 교차로를 4지 교차로로 개선하는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암광장 교차로는 기린대로와 팔달로, 가리내로, 조경단로 등 전주 시내 주요 도로가 접속하는 5지 형태의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은 기린대로와 팔달로가 이 교차로에서 합쳐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또 기린대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 구조를 모

르는 외부 운전자와 초보운전자 등이 기린대로 신호등에서 멈춰서거나 경계방향에서 기린대로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팔달로 방면으로 잘못 접어드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현재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오는 4월 용역을 완료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금암광장 교차로 개선을 위해 기존 5지 형태의 기하구조를 운전자에게 익숙한 4지 형태의 교차로로 정형화시키고 모든 방향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린대로와 팔달로가 만나는

금암광장의 양방향체계를 일방향으로 바꾸는 대신 금암광장에서 시청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기린대로상에 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지 형태의 교차로가 4지 형태로 개선되면 진안·남원 방면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팔달로를 통해 전북 광장 교차로로 진행하지 않고도 신설 교차로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우회거리가 짧아지고 교통량도 분산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공사에 착수,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주민등록·인감 업무 담당자 교육

전주시가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주민등록·인감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22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전주시 33개동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친절 교육을 했다.

교육은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

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한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개정된 법규사항 △특이 민원사례 공유 △대응방안 논의 등 실무교육과 민원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교육으로 구성됐다. 또 민원 기본응대 요령에 대한 친절 교육도 진행됐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전주시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워 위기상황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

시는 22일 현대해상빌딩 5층 회의실에서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황인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강사가 초경매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 방법과 자동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황 강사는 "사고발생 시부러 신고 받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약 10분 그 중 초기대응이 절실한 4분 이른 바 '심장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일대일 지도와 실습매뉴얼을 활용한 홍보압박, 인공 호흡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돼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매월 셋째 주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해 전 직원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전북경찰청 2부장에 김학관 경무관

김학관(51·사진) 경무관이 전북지방경찰청 2부장에 임명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2부장 김갑식 경무관이 경찰청 경무관사 기획관실 특별수사단장에 파견됨에 따라 2부장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김학관 경무관이 부임했다.

신인 김학관 전북지방경찰청 2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 청성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경위에 임용돼 충북 음성서장, 경기청 부천소사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서울청 강남서장, 경찰청 기획조정 담당관, 대전청 제1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삼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